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공동 추진

부안군-강진군-해남군, 협약 체결

부안군은 지난 17일 고려청자 요지(가마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 지역인 전남 강진·해남군과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민간인 참여 없이 개최한 이번 협약식은 부안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던 부안 상감청자 유적(유천리·진서리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 중 청자관련 지자체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이들 3개 지자체에 있는 고려청자 요지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등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협약식에는 3개 지자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신청 및 보존관리 등 제반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유천리·진서리



부안군은 지난 17일 고려청자 요지(가마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 지역인 전남 강진·해남군과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MOU)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려청자 요지는 전성기 상감청자가 생산된 곳으로 강진 사당리·용운리 및 해남 진산리 청자 요지와 함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곳"이라며 "천년 전 조상들의 우수한 고려청자를 생산했던 요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에는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상감청자를 주로 생산한 사적 제60호 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등 85여 개의 가마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섬유 소재 공예품들 '한곳에'

전주공예품전시관 '지역작가 소재전-섬유' 특별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지역의 공예작가 중 섬유를 소재로 활동하는 작가를 초대해 '2020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역작가 소재전-섬유' 전시는 전주공예품전시관 관매관 입점 작가를 중심으로 기획된 행사로 다음 달 5일까지 관매관에서 열린다.

참여 작가는 김 숙, 김운성, 김지원, 남지현, 배경민, 오미희, 윤혜영, 이미숙, 이상준, 최영숙, 정은경, 조미진, 조양선, 천성순, 장은희, 최지영 등 모두 16명이다.

누에, 목화, 명주, 실크사 등 섬유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이번 전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단순한 자연물 안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객들은 정성어린 작업 과정을 통해 자연에서 찾은 소재를 중심으로 수공예의 가치를 존중하는 섬유 작가들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유를 중심으로 조각보, 스카프, 색실 누비, 전통복식 한복 인형 등 섬유공예의 섬세하고 우아한 30여종의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전시품들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참여작가들의 다양한 수공예품을 현장에서 예약판매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전시장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시리즈로 기획되는 특별소재 전시는 지역 공예작가들을 중심으로 도자, 한지, 금속, 목공예, 옷칠 등의 순으로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산업팀(063-282-8886)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

정읍시립박물관, 지역 역사·정체성 담은 유물 내달 10일까지 공개구입

정읍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을 위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과 동화 등 정읍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중증 포함)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유물은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정읍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돌파구 찾는다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물' 서비스 본격화 편의 제공

현장 업무 공백기 활용 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 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나섰다.

18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하루 평균 10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으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직감하고 있다.

이에 전시관은 코로나19로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 방역을 매일 2회, 전 직원 마스크 착용, 각 관에 손 소독제 비치 등 질병관리본부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객들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명인물' 서비스를 본격화해 구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에는 기획상품전 '필수(必修)...' 꼭 필요로 함을 기획해 최근 사태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에게 항균성 공예품을 소개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기획상품전 필수는 기생충, 감기 균의 접근을 막는 옷칠 상품, 미네랄 방출 및 식중독균을 잡는 방짜유기, 통기성과 발효성이 높아 저장능력이 뛰어난 응기 상품으로 구성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시관은 코로나19로 빚어진 현장 업무의 공백기를 활용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 현장 및 행정 업무 전 분야를 돌아보며 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계획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산업팀(063-282-8886)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



코로나19 여파... 익산 문화재 야행, 7월로 연기

익산시는 2020 익산 문화재야행을 7월 10,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익산 문화재야행은 8야(夜)를 테마로 문화재와 함께 다양한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야간형 행사로, 당초 4월 17~18일, 9월 25~26일 2회에 걸쳐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이 장기화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전국적인 불안감을 감안할 때 행사의 연기가 불가피하다 판단하여 상반기 일정을 백제문화유산주간 중인 7월 10~11일로 조정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코로

나의 확산방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당초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시기가 7월로 늦춰진 만큼 계절에 맞는 테마와 컨셉으로 재구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벚꽃 개화시기인 4월초(4월 4일 ~ 12일) 주말에는 백제왕궁인 왕궁리유적에서 벚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심리를 해소하고, 지친 마음에 여유를 되찾아 줄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영림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